



[산업]
시에 쫓긴
이재용 부회장
‘뇌 신경망’ 열공
06



Life

[헬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국내 최고 감염시스템
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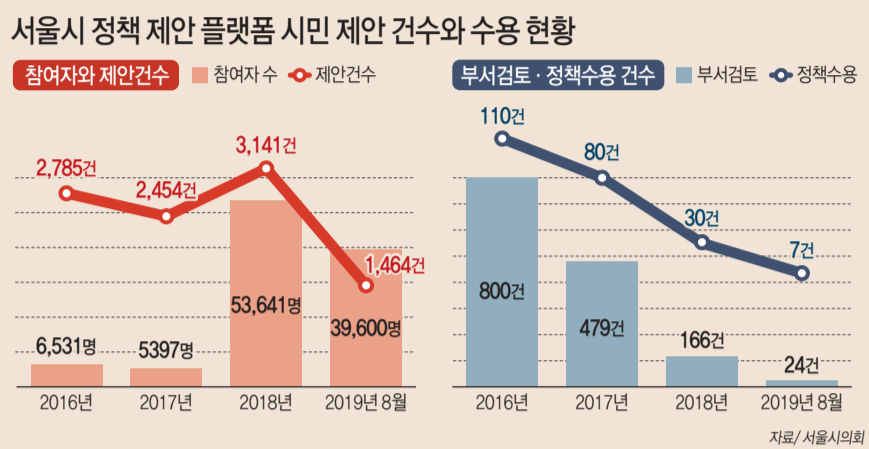


시민의견 듣겠다더니... 문턱 높인 ‘민주주의 서울’ 참여율↓

**정책제안 공식 답변 기준 강화
부서검토·정책수용 건수 감소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낮아져
기관간 협력해 수용비율 높여야**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구축한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공식 답변 대상 기준을 강화해 의제 공론화 문턱을 높이고 정책 수용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제안 건수는 월평균 183건으로 2016년 232건과 비교해 약 21% 줄었다.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참여가 줄어든 이유는 낮은 정치적 효능감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의 정책 수용 건수는 월평균 0.8건으로 2016년 9.1건 대비 91.21% (8.3건) 감소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의 시민 제안 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한 계층을 보완해 만든 시민 참여형 플랫폼이다. 시는 시민이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개편해 2017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해왔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정책 제안 플랫폼(천만상상 오아시스, 민주주의 서울)의 참여자 수와 댓글 수, 정책 제안 건수는 증가했다. 정책 제안 플랫폼의 참여자 수는 2016년 6531명에서, 2017년 5397명, 2018년 5만3641명으로 8.2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댓글 수는 2023건에서 2만8799건으로 14.23배 이상, 정책 제안 건수는 2785건에서 3141건으로 12.78% 늘었다. 반면 서울시의 시민 의견 부서 검토

건수와 정책 수용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6년 800건이었던 부서 검토 건수는 2017년 479건, 2018년 166건으로 79.25% (634건) 줄었다. 같은 기간 정책 수용 건수는 110건에서 30건으로 72.73% (80건) 감소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자 시민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 제안 건수는 월평균 183건으로 2016년 232건과 비교해 21.12% 감소했다. 정책 수용 비율이 줄어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 시스템 재개발을 위해 예산이 전년 대비 6억2200만원 증액 편성됐으나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제안 건수와 정책 수용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서울이 오픈한 직후인 2018년을 제외하고 실질이 천만상상 오아시스 때보다 줄었다”고 꼬집었다.

시는 업무 부담 가중과 소수의 제안

독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 답변 기준을 강화했다. 부서검토 대상 기준은 2016년 공감 10건 이상에서 2017년 공감 5건 이상으로 완화됐다가 지난해 10월 공감 50건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은 50명이 이상이 공감해야 담당부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준다.

시의회는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그 결과 시민 제안 전체 건수에 비해 극히 일부만이 공론화와 정책 수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권한 범위를 넘는 업무, 예산상의 문제와 같은 사유로 의미 있는 시민 제안이 공론화와 정책 수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제안 정책 수용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공공데이터 저장소’ 구축... 3년간 289억

**행정, 도시데이터 분석·처리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향후 3년간 총 289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통합저장소’에서는 교통·시설·복지 등 서울시가 보유한 518종 시스템의 행정데이터와 IoT센서(S-DoT)에서 수집한 ‘도시데이터’를 모아 분석·처리한다. 총 데이터 용량은 약 4페타바이트다. 이는 1기가바이트 용량의 영화 400만편과 맞먹는 규모다.

시는 공공데이터를 교통, 안전 등 각종 서울시 정책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예정이다. 시는 한옥 등 건축물 정보와 의료기관·소방시설·구급차데이터를 융합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화재나 응급구조 준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기관·부서별로 분산 처리되고 있는 모든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를 일원화해 활용도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활용·개발한다.

시는 “그동안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5400여개 데이터셋을 개방해왔지만 기존 행정데이터가 각 기관, 부서별로 저장·관리되는 칸막이 구조여서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관공동 빅데이터 협력으로 제작하는 융복합 데이터가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의 지하철·버스 이용정보, 부동산 정보와 민간의 통신사 유동인구, 점포매출 데이터 등을 결합해 서울시내 상권별로 ‘상권발달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우대서비스에 지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용역을 위한 사업규격을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서울’ 실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통한 공공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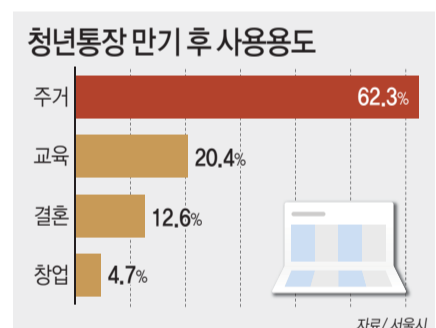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용도 1위 ‘주거’

주거 62.3%... 교육, 결혼 뒤이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기 후 사용 용도 1위는 주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 참가자들이 월 10·15만원씩 저축(2·3년 중 선택)하면 시가 적립금 100%를 매칭 지원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말 만기 적립금을 받은 663명과 청년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기 수령자의 62.3%는 적립금을 주거환경개선·주택청약 등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고 6일 밝혔다.

주거에 사용한 응답자의 58.7%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주거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등록금 납입·학원 수강 등 교육 용도가 20.4%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결혼 12.6%, 창업 4.7% 순이었다.



향후 삶의 계획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 일반청년의 3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통장 졸업자(60.0%)가 일반청년(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기대, 저축습관 형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항... 시민 목소리 담는다

**비상임위원 14명 위촉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회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위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와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합의회 기구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위원장(개방형 2호), 위촉직 위원 11명(시민 공모 위원 6명,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임명직 위원(시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등 4개 부서가 사무기구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장은 “이번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통해 그간 시정운영 철학으로 삼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가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큰 그릇이자 통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인천공항공사, 세계항공컨퍼런스 개최

50개국 참여... 공항·항공 미래 논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세계 공항·항공 산업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제4회 세계항공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주최·주관하는 세계항공컨퍼런스는 2016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4회째로 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약 50개국 700여 명의 세계 항공 및

공항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항공산업 내 협력방안’을 주제로 바탕으로 기초연설과 총 6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세션 주제는 공항경제권의 전략적 육성방안, 항공운송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 허브공항 동향 및 시사점, 허브공항을 위한 정책지표 관리방안, 항공 수요 증대를 위한 사용자 정책, 공항서비스 평가 도전과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